

# 장성군, 쌀 농가에 희망 전했다

### 식량작물종합평가회 개최...재배 효율성 높이는 신기술 제공 '안평' 품종 도입 시범재배 성과 공유...탄소저감 기준 적용도



장성군이 15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에서 식량작물 종합평가회를 가졌다. 군은 60여 명의 농업인이 참여한 가운데 시범사업 성과

와 쌀 안정생산 방안을 공유했다. 올해 장성군 쌀 농가는 기후 변화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 때문에

해충이 2배 이상 증가한 데다, 장마가 길어지며 일조량마저 부족했다. 군은 990㎡(300평) 기준인 단보당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3% 가량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장성군은 이날 평가회에서 식량작물 재배 신기술을 제공하는 등 농가 지원에 힘썼다. 농사 과정에서 풀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문답 시간도 마련했다.

특히 농가의 이목을 끈 순서는 시범사업 성과 보고였다. 올해 초 장성군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안평' 품종을 도입해 18.5헥타르(ha) 규모 시범단지를 조성했다. 재배 과정에선 드문모심기, 적정량 비료 사용 등 탄소저감 기준을 적용했다.

2020년 농촌진흥청 최고 품질 품종으로 선정된 '안평'은 밥맛이 우수하고 벼 쓰러짐과 병해에 강하다. 영호남 남부평야에서 재배하기 적합하며 수량은 10아르(a) 당 평균 562kg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산물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농업인 여러분이 안심하고 고품질 쌀 생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운 점을 함께 해결해 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장성=김수권기자



## 화순군, 만원 임대주택 2차 입주 대상자 추첨 성료 청년 31명·신혼부부 21명이 선정되어 10월 말 입주 예정

화순군은 지난 9월 17일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 2차 입주자 추첨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2차 추첨 대상자는 총 495명이었으나, 이 중 32명이 불참하여 최종 463명이 추첨식에 참여하였다. 추첨 순서는 신혼부부가 먼저 하고, 뒤이어 청년부 추첨 순으로 진행되었다.

2차 1만 원 임대주택 공급 방식은 청년 26호와 신혼부부 26호 등 총 52호가 배정될 계획이었으나, 신혼부부 서류심사 통과자 및 행사 참여자가 21명에 그쳐 남은 5호의 물량이 청년에게 재배정되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청년 31명과 신혼부부 21명이 선정되었고, 입주 포기 시 추가 선정될 예비입주자 5명을 포함하여 총 57명의 입주자

와 예비입주자 선정이 마감되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이날 추첨식에서 "높은 주거비로 인해 결혼과 출산 등을 포기하는 청년들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원 임대주택사업을 시작했다"라며 "이 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주거비 문제뿐만 아니라 취업과 양육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한 더 좋은 정책을 발굴하여 우리 젊은 세대들의 고민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번 2차 추첨 당첨자는 10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 즉시 화순군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 및 입주와 관련해 자세한 소개는 당첨자 측에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최종 당첨자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화순=박순철기자

## 담양군, 담양군약사회와 치매안심약국 업무협약

담양군은 담양군약사회(회장 박찬식)와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담양군과 담양군약사회는 치매안심약국 확대와 치매 안전망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치매안심약국은 약사가 약국을 방문하는 주민에게 치매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치매약 복약지도 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 안내 등 지역사회 치매 안전 지킴이의 역할을 한다.

군 관계자는 "치매안심약국 확대를 통한 치매 예방 네트워크 구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자원과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치매 관련 문의 사항은 담양군 치매안심센터(061-380-2971~297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담양=박종영기자



## 나주시, 농촌지역 '찾아가는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호응

나주시는 문평면에서 '찾아가는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14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위해 방지 등을 위해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대상 동물이 미등록 될 경우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나주시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에 따른 등록비용을 마리당 3만원, 1인당 최대 5 마리까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등록제에 대한 인식 저조와 이

동수단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경우 동물 등록률이 현저히 저조한 실정이다.

나주시 축산과는 이날 관내 동물병원과 협업을 통해 문평면 행정복지센터 지정 장소에서 동물 등록과 반려동물 기본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며 호응을 얻었다.

나주시 관계자는 "향후 추가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민들의 편의를 위한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주=송준표기자

## 구례군, 찾아가는 안전교육 '남도안전학당' 운영

### 12월까지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구례군은 9월부터 12월까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 '남도안전학당'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남도안전학당'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방지 대책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안전강화 사업이다.

구례군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노화에 따른 운동 능력 변화와 생활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안전사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전라남도에서 위촉된 전문 강사 4명이 마을회관, 경로당 등 135개소를 방문하여 어르신들이 생활 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 교육을 병행한다.



교육 내용은 교통안전(전동차 안전, 보행 안전, 안전운전 수칙 등), 생활안전(화재 및 지진 발생 시 대피 방법, 소화기 사용법 등) 등으로 구성됐다.

김순호 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이 각종 위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르신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구례=박진호기자



#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관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